
신체, 시선, 권력: 조선 후기 여성 소설 『박씨전』의 재고찰*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조선 여성들에 대한 상상
- II. '여성 영웅 소설', 『박씨전』
- III. 신체와 시선의 정치학
- IV. 낯빛과 몸짓의 응전
- V.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피화당
- VI.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여성 영웅소설 중 하나인 『박씨전』을 통해 가부장제의 이념에 통제되지 않는 하위자의 목소리를 재구성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주로 문학 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 달리 이 논문은 타자를 배치하는 권력의 장으로서의 신체성과 시각의 관점에서 『박씨전』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박씨전』 안에 나타나는 신체에 대한 시각적 통제와 배치를 지배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면 박씨의 다양한 실천 역시 권력을 역전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의 주체는 대상들을 하나의 표준적 좌표 안에 배치할 수 있게 되고 배치된 대상들에 이름을 붙이고 통제할 권력을 얻는다.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시선은 자신의 규범을 대상에 적용하고, 이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벗어나는 존재들을 좌표 밖으로 밀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박씨의 '추모'란 그 좌표 밖에 밀려난, 다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9796).

말해 시선의 주체들에 의한 관리를 요구하는 열등한 타자성이다. 그러나 탈갑 이전 박씨의 추모는 일종의 타자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씨의 탈갑-변신을 통해 타자를 대상화하고 통제하는 시선을 시선으로 되갚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낮빛과 몸짓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씨는 푸코가 말하는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피화당을 통해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자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며 힘의 위상을 전환한다. 이를 통해 박씨로 하여금 시선에 의한 통제와 정복을 극복하게 해 주는 힘이 사실상 비범한 능력이나 도술이 아니라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스스로 자신을 말하는 언어와 실천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박씨전, 여성 영웅소설, 타자성, 헤테로토피아, 시선, 신체, 피화당

I. 들어가며-조선 여성들에 대한 상상

말세가 되니, 부인의 의복이 소매는 좁아지고
 옷자락은 짧아지니 묘사스런 복장에 가깝다.
 나는 비록 이런 일이 싫지만 온 나라의 풍속이 되었으니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¹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李瀾, 1681~1763)의 글이다. 성호는 이 글 외에도 여러 곳에서 여성들의 사치스러운 머리 장식과 복장을 개탄하기도 하고 아내들이 사나워진 것은 아내를 내쫓는 국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출처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도 한다. 중심에서 벗겨진 재야의 학자로서 성호는 병아리부터 유민, 거지, 서얼에 이르기까지 약자에 대해 깊이 연민하는 공감을 보여주지만 유독 여성들에 대해서만은 혹독하고 가혹한 평가를 내린다.²

성호뿐만이 아니다. 어떤 표현, 어떤 형식에 담겨 있다 해도 조선 시대에 여성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통제되었고 그 통제를 정언 명령화하는 다양한 언설과 실천, 제도들이 조선 시대 내내 반복되었다. 조정은 여성들의 사치를 금하는 금령을 반복적으로 반포했고 사대부 지식인들은 딸과 아내를 유순하게

1. 『성호사설』, 「부인복(婦人服)」, 末俗婦女之服, 窄袖短裾, 近於服妖, 余雖惡之, 大同之風, 亦無奈何也.

2.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선희, 「가(家)의 확장과 내부의 실천: '여성'으로 본 성호학파의 유가적 세계」, 『민족문화연구』 6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만들어 통제할 내훈(內訓)류, 계녀서(戒女書)나 여사서(女四書)들을 끊임없이 저술했다.

우리는 이 강고한 실천과 제도들 앞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상상력은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지배 담론이 만들어낸 제도와 이념이 담긴 언어와 실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조선 시대 여성들은 당대의 여성들이 아니라 계녀서 속에 포착되고 조정된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점은 문제를 조망하는 다른 관점과 시야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통제와 조정을 위한 이념의 언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이 이념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다. 통제와 담론이 준엄하고 여성을 '교화'하려는 언설이 견고한 만큼 이 언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세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만일 통제가 효과적이었다면 여성에 관련된 금령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성들이 '유순'했다면 교화서가 계속 쓰여지고 유통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생각보다 조선 여성들의 삶이 존중받았다거나 덜 불평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도와 이념에 통제되지 않았던, 순치되지 않았던 영역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과잉의 언설과 초과적 이념은 타자를 규정하고 배치하던 이들에 의해 글로 남겨졌지만 그 작동의 효과와 결과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불균형을 연구의 전제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 남겨진 언설을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 효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훈, 여범, 계녀서에 담긴 언설들은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현실을 초과하는 상상된 이념의 선언이자 모종의 힘 혹은 변화를 잘라내고 규격화하려는 힘의 선포다. 이 힘과 그 효과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조선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조선 여성들은 시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정도와 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평등하고 제한적인 조건 위에 놓여있었다.

이 통제와 긴장의 정도가 약한 곳, 혹은 그 이념에 동의해서 스스로 언설에

동참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³를 지배 담론과 등가로 대응시킬 경우 나올 수 있는 답이 한정되어 있다. 전자는 일반화할 수 없는 특수한 사례이며 후자는 지배적 담론을 재상산하는 차원에 선다는 점에서 모종의 예각과 틈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제한적이다. 전자의 사례는 확대 해석되어 '조선 여성들이 다른 문화권 여성들에 비해 존중받았다'는 무신경한 주장에 이용되기 쉽고, 후자의 사례는 조선 사회가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 이념은 여성들 자신도 동의했던 바라며 지배담론을 초역사적으로 보편화할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시대 여성의 삶과 실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념적 규범적 언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빈도 등 외적 조건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여성과 관련된 제도들 혹은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언설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초과적 언설의 반복적 재생산은 어떤 이념적 언설에도 통제되지 않는 불균질하고 불확정적인 틈과 균열이 존재했고, 어떤 연유에서건 순치되지 않은 영역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침묵하는 하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모종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 불확정적인 틈과 균열, 이념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비집고 올라오는 모종의 힘들을 확인할 한 가지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에 등장한 여성 영웅 소설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나온 수많은⁴ 여성 영웅 소설들은 현실과 이념 사이의 틈을 비집고 나온 하위자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목소리들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초과하는 상상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거나 혹은 현실에 뿌리내리려는 모종의 노력일 것이다.

3. 김호연재·임윤지당·강정일당·이병허각 같은 인물이 예가 될 것이다. 최근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의 복원 뿐 아니라 지적 실천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다. 여전히 낯선 감이 있지만 '여성 지성사'라는 제호로 묶일 정도로 여성 유학자·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4. 조선 후기에 창작된 여성 영웅소설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20여종에서 40여종까지 다양하게 파악된다. 조은희, 『고전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05.

이 논문에서는 여성 영웅 소설 가운데 『박씨전』을 통해 하위자의 목소리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소설들, 여성 관련 소설들, 그리고 여성 영웅 소설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상당한 범위와 양으로 축적되어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조선 후기 소설들을 읽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문학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 달리 이 논문은 신체성을 매개로 타자를 배치하는 권력의 장인 시각의 관점에서 『박씨전』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박씨전』 안에 나타나는 신체적 이미지와 이에 대한 시각적 배치를 지배적 세계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면 박씨의 실천 역시 그에 대한 한 가지 대응 방식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여성 영웅 소설', 『박씨전』

『박씨전』은 현재까지 약 100여 종의 이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이 소설의 한문본이나 방각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박씨전』이 주로 사대부 여성들에 의해 창작되고 열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⁶ 한문본은 없지만 한문을 번역한 듯한 문체를 보이는 이본이 많고 상업 출판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로 사대부 여성들이 주 독자층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상당한 이본의 존재는 이 소설이 얼마나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박씨전』은 일찍부터 주목된 작품에 속하는데⁷ 고소설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가 활발해진 이후에 더욱 많은 연구들이 등장했다.⁸ 『박씨전』은 특히 여성 영웅 소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부각되었는데⁹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다.¹⁰ 주로 문학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들

5.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고전문학집』(1995) 15권에 수록된 『박씨전』을 신뢰성 있는 선본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박씨전』의 이본인 『명월부인전』이 함께 실려 있다. 이후의 인용에서 '고대본'이나 '명월부인전'으로 표기할 것은 이 책에 실린 판본을 의미한다.

6. 장효현, 『『박씨전』의 문체의 특성과 작품 형성 배경』, 『한글』 226집, 한글학회, 1994.

7. 『박씨전』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김태준에 의해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다.

8.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 논문, 1996;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199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9. 진용문, 『여성 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 논문, 1988.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10. 조은희, 앞의 글: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

은 『박씨전』을 비롯해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들의 유래와 영향을 검토하거나 유형화나 서사 단락의 분석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주었다. 이 연구들은 각자 독자적인 기준을 내세워 여성 영웅들을 유형화하고 있지만 대체로 남성과 대립이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여성 영웅의 활동 양태와 현실 타협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박씨전』은 주로 여성 영웅담, 혹은 여성들의 전쟁 체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박씨전』은 '도교적인 여성 영웅담으로 병자호란의 실제에서의 패전을 통쾌한 정신적 승리로 설분하여 조선 민중들의 정신적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기여한 작품'이라거나 '조선 여성들의 한을 풀어 억압된 제도과 인습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여 준 작품'¹¹, 혹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상황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의 문제를 소설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그 전쟁에서 여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아픈 기억에 대한 소설적 대응 방식을 보여준 치유의 문학'¹²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 『박씨전』을 비롯한 여성 영웅 소설들에는 남성 중심의 영웅 서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¹³ 여성 영웅소설은 영웅 서사의 하위구조나 단순 변형으로 보기에는 목표와 지향 자체가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영웅'이 아니라 '여성'을 조망의 각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시도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신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성이 영웅일 때 드러나는 다른 심층, 내적 구조, 소설적 지향과 독자의 욕망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지점에서 여성들의 자기의식이나 제한적인 현실에 대한 보상 심리를 읽고자 한다.

성문학회, 2004; 광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126집, 국어국문학회, 2000 등.

11. 심복동, 「『朴氏傳』研究: 道敎思想을 中心으로」, 『道敎文化研究』 11집, 도교문화학회, 1997, 306쪽.

12. 조혜란, 앞의 논문, 280쪽.

13. 이 점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바이다. 조은희, 앞의 글; 이규경, 「여성 영웅소설의 이야기전개 방식」, 『한국의 여성 영웅소설』, 태학사, 2000 등.

‘여성성의 표출’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개념적 분석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연구의 관점이 자 분석의 틀로서의 ‘여성’ 혹은 ‘여성성’은 완결된 사전적 개념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점과 기반하는 이론들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여성의 잠재적인 힘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거나 ‘근원적 여성성으로서의 생산성이라는 여신의 본질적 특성이 특이한 형상을 한 여성 이인(異人)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잠재적인 여성 능력이 지닌 가능성과 의미를 드러낸다’¹⁴는 식으로 박씨의 여성성을 강조한다.¹⁵

우선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의미를 따라간다고 해도 전쟁 중에 발휘되는 박씨의 능력에서 잠재된 ‘여성성’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영웅적 행위를 할 때의 박씨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여성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여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어있거나 수없이 많은 기의들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 그다지 ‘여성성’을 표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많은 여성 영웅들은 자신의 능력 혹은 영웅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성성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¹⁶

14.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 영웅형상 연구』, 보고서, 2012, 108쪽. 이 연구자는 다른 글에서도 여성 영웅소설을 여성성의 표출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성 영웅소설을 ‘여성성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시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병현, 『한국의 여성 영웅소설』, 태학사, 2000, 269쪽.

15. 일찍부터 주목되었던 『박씨전』에 관한 연구 성과들은 사실상 시대적 차이를 보여준다. 어떤 연구는 『박씨전』을 통해 ‘(조선 여성들이)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 가족을 잘 받들고 가사를 돌보는 데서 어느 정도 삶의 보람을 느끼기는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여성의 욕망, 즉 남편의 사랑을 받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인간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내가 되는 데서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김미란, 『『박씨전』과 변신의 모티프』, 『국어국문학』 78집, 국어국문학회, 1978, 188쪽. 지금 이라면 여성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저런 인식이 80년대 연구에서는 일반적 수준이었던 듯하다.

16. 여성 영웅소설의 많은 주인공들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며(『옥주호연』) 청혼을 거절하기도 한다.(『이학사전』) 이들은 여성이기 보다는 차라리 남성이기를 원한다. 이학사전의 주인공 이현경은 스스로 남자의 옷으로 바뀌 입고 출장입상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아들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남자의 복장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지워줄 새로운 기표다. 『방한립전』의 방관주도, 『옥주호연』의 세 자매도 모두 입신양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스스로 원해서건¹⁷ 어쩔 수 없어서건¹⁸ 남장을 한 뒤 남성적 질서 안에서 영웅적 위치에 올라섰을 때 이들은 여성이고자 즉 여성성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고자 한 것에 가깝다. 그들이 쟁취하고자 한 것은 여성성이 아니라 능력을 통한 성취 지위라고 볼 수 있다.¹⁹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 영웅소설들은 여성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따라서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강고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현실에 상상력으로 틈을 내어 절개하고 그 속에서 가상의 사고 실험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박씨전』은 그다지 여성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 극복보다는 타협의 정도가 높은 소설로 분류된다. 비범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전통적인 부덕의 삶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박씨전』이 여성 영웅 소설 중 초기 작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여성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으며 여성 영웅에게 요구되는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²⁰고 지적한다. 일종의 현실

17. 『홍계월전』, 『이학사전』, 『옥주호연』의 주인공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18. 『방한림전』의 경우처럼 주로 부모의 뜻에 따라서 남장을 하게 된다.

19. 『홍계월전』의 주인공 홍계월은 남성의 신분일 때 후에 친자의 명령으로 결혼하게 될 보국과 같등하지 않는다. 계월의 능력을 보국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임이 드러나자 보국은 태도를 바꾸어 계월을 통제하고자 한다. 홍계월은 결혼 제도 안에 머물러 전통적인 아내의 자리로 순치되는 것을 거부한다. 홍계월은 결혼 후에도 영웅성을 표출하며 홍계월을 여성과 아내의 자리에 한정하고자 하는 보국과의 갈등을 힘으로 풀어나간다. 그의 애첩을 죽이기도 하고 경쟁을 벌여 남편을 죽을 직전까지 몰아가기도 한다. 이들의 갈등은 홍계월이 순치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국이 홍계월의 우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패배를 선언한 뒤에서야 해결된다. 보국이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한 지위나 위상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가 그에게 공인해준 남성의 지배 권력이었다. 보국은 이미 한 개인으로서는 홍계월의 능력을 인정했다. 그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뛰어난 능력의 아내를 그 자체로 존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임을 안 순간 그는 자신이 이 뛰어난 여성에 비해 어떤 우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자각한다. 능력이 뛰어난 아내도 아내로서 홍계월을 통제하고자 한 보국은 조선 사회의 지배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남성 대표로 홍계월과 대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실패와 항복은 한 평범한 남성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기대고자 했던 남성적 지배질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홍계월전은 강고한 남성지배질서에 난 절개가 어떤 각도, 얼마만큼의 각도로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과격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20. 심지어 『박씨전』이 '당대 사회의 이상적 남성상의 모사에 불과'하다거나 '중세기적인 남성화 여성의 본보기'라고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김열규, 「페미니즘 문학비평론은 왜 생겼는가, 무엇을 하는가-서론을 겸한 해설」, 줄리아 크리스테바,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공역, 문예출판사, 1988, 6~7쪽. 한

타협형 주인공이라는 것이다.²¹

박씨의 해결 방법은 결국 『방한림전』의 주인공처럼 남성과 결혼하지 않거나 『이학사전』이나 『홍계월전』의 주인공처럼 남성과 결혼하더라도 순종적인 아내이기를 요구하는 남편을 꺾고야 긴장을 해소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절충적이고 타협적이다.²² 그러나 이 절충과 타협의 성격은 단순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 소설의 창작자들이나 독자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꿈꾸었는지, 어떤 전략과 방법을 사용했는지 분석하지 않고는 『박씨전』의 타협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관점과 배경에서 분석하는지에 따라 『박씨전』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III. 신체와 시선의 정치학

박씨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신체 그리고 외모가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추모’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상공이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나, 날이 저물매 한 방에 들어가니, 신부 무릎개를 벗고 앉을 새, 그 용모를 보니 형용이 흉측하여 보기가 염려로운지라. 엮기는 고석(古石)같고 붉은 중에, 입과 코가 한 데 닿고, 눈은 달팽이 구멍같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주먹을 넣어도 오히려 넉넉하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같고, 머리털은 짧고 심히 부하니, 그 형

연구는 『박씨전』에서 일방적인 지배/복종의 관계가 부정되고 남성 중심의 성별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음을 통해 위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한다. 광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126집, 국어국문학회, 2000.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박씨의 활동을 ‘여성성과 함께 박씨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남성성의 발현으로서, 양성(양성)의 조화로운 발현을 통한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소설의 창작자나 향유자가 기대하지 않았을, 현대에나 발굴된 모호한 관념을 소설에 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박씨의 실천과 영웅적 행위는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이 원했던 개방적 삶에 대한 사고 실험이었을 것이지 자신 안의 남성성을 찾는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21. 조은희, 앞의 글, 72쪽.

22. 순치를 거부하고 남성을 굴복시키는 여성이 등장했다 해서(『홍계월전』, 『이학사전』 등) 이를 여성성이나 여성의식의 의미있는 표출로 볼 수 있는지 역시 고민할 여지가 있다. 이들은 실제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여성임을 밝혀야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남장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여성으로의 복귀는 이들의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다. 또 이들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억지로 시인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남성이나 남편을 제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주인공들의 급진성은 개인적 능력의 우열의 문제이지 성별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용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상공과 신량이 한번 보매, 다시 볼 수 없어 간담이 떨어지는 듯하고 정신이 없어 두 눈이 어두운지라. (고대본 151쪽)

다른 판본²³의 묘사는 더욱 처절하다.

간신히 여관을 찾아 들어가 공과 시백과 신부 3인이 한 방에 들새, 신부가 얼굴 가리었던 나삼을 벗었거늘, 그제야 공과 시백이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모양은 고사하고 얼굴이 검고 엷은 중에 추비한 때는 줄줄이 맺혀 엷은 구멍에 가득하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같고, 코는 심산궁곡의 험한 바위 같으며, 이마는 넓게 벗어져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의 이마 같고, 키는 팔척장신(八尺長身)이며, 한 팔은 틀리고, 한 다리는 저는 모양 같으니, 차마 이런 인물은 두 번 보지 못하겠더라. (『명월부인전』 27)²⁴

일반적으로 시선의 주체는 자기에게 호명의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호명은 어떤 존재를 모종의 신체적 특질 안에 가두고 제한하기 때문에 변화와 유동의 가능성을 모두 메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누군가에 의해 포착된 신체적 특질이 ‘땅꼬마’나 ‘번데기’로 호명되는 순간 한 사람의 일부의 신체적 특질이 절대적으로 응고되어 평생 그 사람을 규정하는 틀 역할을 하게 된다. 박씨의 신체적 특질 역시 이 시선의 주체들에 의해 호명당하고 박제된다. 박씨의 신체와 외모는 그들에게 노출되는 순간 ‘괴물’이 되고 ‘일대가관지물’이 된다.

이 여자의 거동은 괴괴망측하여 차마 마주보기 어려우니, 이는 조물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이 여기사 이런 괴물로써 계집이라 일컬으시니(조선고전문학선집 309쪽)

신부 교자(轎子)에서 내려 협방(夾房)으로 들어가서 얼굴 가리었던 나삼을 벗어 놓으니 일대가관지물(一大可觀之物)이라. 비평(批評)이 무수하고 좌중제인이 보고 히히히 웃어 알, “구경은 출생 후 처음 보는 구경이다”하며 면면(面面)이 상고(相顧)하더라. (『명월부

23.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한 판본도 있다. ‘이윽고 신부 들어오거늘 공자 몸을 일어 맞아 좌정하고 눈을 들어 신부를 보니 키는 거의 칠 척은 되고 수족이 불인하여 걸음을 절며 안색이 먹칠같고 두 어깨에 쌍 혹이 늘어져 가슴을 덮었으니, 비전대 흑살천신(黑煞天神)이 아니면 분명히 염라부(閻羅府)의 우두나찰(牛頭羅刹)같은지라. 공자 그 흉악한 용모를 보매 혼백이 달아나고 또 신부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 코를 거스르니 공자 비위를 능히 진정치 못할지라, 황망히 뛰어나와 오히려 놀라움을 진정치 못하거늘’ 허균, 『홍길동전 박씨부인전 전우치전』, 보리, 2004, 308쪽. 이 책에 실린 『박씨전』은 북한의 문예 출판사가 1985년 간행한 『조선고전문학선집』 판이다.

24. 『명월부인전』은 『박씨전』의 이본으로 필사자가 고대본계의 『박씨전』을 필사하다가 내용을 부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전』 27)

박씨의 신체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드러나고, 호명되며, 그리하여 배치된다. 시각은 대상과의 거리를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늘 객관성을 의미했고 그렇게 확보된 객관성은 지식, 인식, 직관, 반성, 통찰 등으로 번역됨으로써 시선을 통한 세계의 통제를 정당화해왔다. 이 능력들을 통해 시각의 주체는 대상들을 하나의 표준적 좌표 안에 배치할 수 있게 되고 배치된 대상들에 이름을 붙이고 통제할 권력을 얻게 된다.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시선은 자신의 규범을 대상에 적용하고, 이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벗어나는 존재들을 좌표 밖으로 밀어낸다. 예를 들어 박씨의 ‘추모’란 그 좌표 밖에 밀려난, 다시 말해 시선의 주체들에 의한 관리를 요구하는 열등한 타자성이다.

시각이 결코 자연적이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조직된 것임을 여러 연구들이 충분히 밝혀 왔다. 철학사가 온갖 시각적 은유들에 의해 즉 시각중심주의에 지배되어 왔다는 것, 인식 모델로서의 시각이 다른 모든 감각 기관의 척도로 기능하며 통제해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상식이며, 동시에 시각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논법 역시 일반화되어 있다. 시각을 가장 고귀한 감각으로 인정한 아리스토텔레스나 지성과 시각을 연결시켰던 플라톤의 발상은 서양 문화에 시각을 특권화시키고 시각에 포착된 대상들을 모두 물질화시키는 역사적 효과를 발휘했다. 사르트르나 푸코, 한스 요나스 같은 철학자들은 시선이 권력모델이라는 점, 배치되고 배열되고 통제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었다.

잘 알려져 있듯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규정한다. 응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의 신체다. 사르트르는 타자의 신체를 내가 그것에 대해 생명이 없는 물체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심적 대상(objet psychique)으로 규정한다.²⁵ 사르트르에게 시선이란 그에 포착되는 대상을 화석화시킬 수 있는 메두사처럼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힘(puissance)’이

25. 변광배, 「사르트르의 시선과 신체에 관한 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37집, 한국불어불문학회, 1998, 207쪽.

다.²⁶ 시선의 공격성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듯 사르트르다. 보는 것, 응시는 쏘는 것(shooting)이고 존재의 유동성을, 침투불가능한 밀도를 딱딱한 고체적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적인 ‘객관화’이다.

타자는 나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는 자이고 내가 아직 시선을 돌리지 않는 자이다. 타자는 ‘드러내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서의 나를 나 자신에게 넘겨주지만, 그 자신은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자이다. 타자는 그가 지향되고 있는 한에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지향하고 있는 한에서, 나에게 대해 현전적으로 있는 자이다. 타자는 나의 도피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구체적인 극이고, 나의 모든 가능한 타우화의 극이며, 이 세계와 ‘똑같은 세계’이면서도 이 세계와 교통이 불가능한 하나의 다른 세계를 향한, 나의 세계 유출의 극이다.²⁷

본래 시각은 접촉에 의한 대상과의 직접적 관계를 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대상으로부터 시선의 주체를 안전하게 해줄 공간을 확보해준다. 이 공간 안에서 시각의 주체는 대상을 자기 방식으로 재단하고 규정하고 고착시키고 벌어진 공간만큼 뒤로 물러나 안정성과 우월성을 확보한다. 시각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고-서로 응시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때 발생하는 객관화는 사실 주관성의 전유에 불과하다.

오직 자신만을 시각과 그 시각의 배후로서의 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는 타인은 바라봄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의 타자인 나를 신체로 환원한다.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 눈의 이미지와 그로 인해 그가 상상한 내 심리적 무드이지 그 모든 것들의 불가분해적 종합이자 유동으로서의 나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신체로 환원된다. 신체의 이미지에 어떤 수사를 붙여 추상화 하더라도 그것은 신체의 이미지에 대한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씨에게 남편 시백은 나를 바라보고 응고시키며 나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나를 나의 세계로부터 유출시키는 타자였을 것이다.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나는 세계 한복판에 응고된 것으로서, 위협에 처한 것으

26. 앞의 논문, 209쪽.

27.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09, 456쪽.

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서²⁸ 존재하게 되듯 박씨 역시 응고되고 치유될 수 없는 배제와 단절의 상태에 처한다. 가리워져 있고, 말이 없는 박씨는 이들에게 단순히 추한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득춘과 이시백이 들추어낸 나삼 속의 박씨는 완전한 타자이며 완전한 사물이다. 박씨의 존재는 나삼을 벗기는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며 이 존재의 노출 이전에도 이후에도 박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아버지 이득춘은 박치사를 믿고 타자성, 사물성의 판단을 철회하고자 노력한다.

아무리 절대佳人(絶代佳人)을 가리어 며느리를 삼아도 여행(女行)이 없으면 인륜(人倫)이 해상(害傷)하여 가문을 보존치 못할 것이요, 또한 비록 험상한 사람이라도 덕행이 있으면 일문이 흥하여 만복을 누리나니, 무슨 말씀을 그다지 수다스럽게 하오. (『명월부인전』 27)

이득춘은 '너의 아내도 비록 자색(姿色)은 없으나 뛰어난 절행(節行)과 비범한 재질이 있을 것이니(『명월부인전』 29)'이라며 미래의 보상을 믿는다. 이러한 평가는 외모가 아닌 다른 능력으로 박씨를 평가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의 박씨를 초과한다는 점에서는 시백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색은 없지만 덕행이 있고 그 덕행으로 집안이 잘 될 것이라는 이득춘의 주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기대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자리에 성취된 사건이 아니다. 이시백은 아버지처럼 자신을 설득할 수 없었다. 이시백은 아버지와는 달리 미래의 보상을 믿지 못하며 타자화된 낯선 사물-괴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낙담할 뿐이다.

또한 시선으로 박씨를 타자화한 시백은 확보한 거리 뒤에 서서 박씨를 무성화, 탈성화한다. 시아버지 이득춘 역시 박씨를 탈성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득춘에게 중요했던 것은 집안을 일으킬 며느리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시백에게 박씨는 벗어날 수 없는 추한 족쇄와 같고 이득춘에게 박씨는 한 사람의 인격이라기 보다는 가문을 빛낼 덕행의 소유자일 뿐이다. 이들은 박씨에게 있는 것을 지우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부과한다. 그러나 타인들이 기대하는

28.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손우성 역, 삼성출판사, 1990, 448쪽.

용모가 ‘없다’고 해서 박씨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있음과 없음은 타인들이 기대하는 이미지의 수위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박씨의 부재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는 오직 타인이 나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고 기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초과적이고 과잉적인 성격을 갖는다.²⁹ 그러나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타자는 더욱 더 멀리 기하학적 위치에 배치된다. 시백은 아예 스스로 눈을 가려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달아나고자 한다.

박씨의 얼굴을 보매 문득 추비한 마음에 과연 동침(同寢)할 뜻이 없어, 한편 구석에 등돌아 앉았다가 나와 다른 방에서 자고(고대본 155쪽)

아내 있는 방문에 들어가면, 자연 마음이 싫고 눈이 감겨, 아무리 하여도 동침하고 화락하기 어려운지라(고대본 159)

싫은 마음을 억지로 내어 내당에 들어가 박씨를 대하면, 부친의 훈계는 냉수 한 그릇이요 미운 마음 돌발하는지라. 등잔 뒤에서 부채로 차면(遮面)하고 밤을 걱정으로 지내더니, 계명성(鷄鳴聲)이 나거늘, 즉시 나와 부모 전에 문안하니, 상공이야 어찌 이런 줄을 알리오. (『명월부인전』 31)

시각이 보존해주는 거리 때문에 시각 주체는 대상이 끼칠 수 있는 모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자유는 때로 무심함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시각의 고귀함, 대상에 영향받지 않는 신성함은 시각 주체를 추상적이고 냉정하며 타자에 공감할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버리기 쉽다. 오직 자신의 시선을 신성화하지 않는 시선의 소유자만이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씨의 종 계화는 박씨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퍼함으로써 박씨의 고통에 공감한다.

박씨는 피화당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수심으로 지내는지라. 시비 계화가 그 거동을 보고 슬퍼하며 위로하니, 박씨가 “사람의 팔자는 길흉화복이 다 천정(天定)이라.” (고대본 171쪽)

29. 이득춘은 이러한 초과적 기대를 호칭에 담는다. 박씨를 ‘현부(賢婦)’(『명월부인전』 27) ‘선골(仙骨)’(『명월부인전』 33) ‘선인(仙人)’(『명월부인전』 47) ‘영웅대략’(『명월부인전』 47)이라고 부르며 박씨가 지은 조복을 본 왕은 박씨에게 ‘영웅풍도(英雄風度)’가 말한다. (『명월부인전』 39)

계화가 박씨의 외로이 앉았음을 강개(慷慨)히 여겨 여주되, “이 사이 경사를 보시고 누일(累日) 대연(大宴)을 배설(排設)하여 고구 친척 상하 없이 즐겨하옵는데, 홀로 아씨는 참례도 못하시고 적막히 계시니 보옵기에 비창(悲愴)하올 뿐만 아니라, 주야 수심(愁心)으로 세월을 보내옵시니 소비(小婢)같은 하정(下情)에도 오히려 미안하여이다.” (『명월부인전』 57)

그러나 계화가 느끼는 공감과 연민을 시백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대상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거리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상을 기하학적 배치의 요소로 취급하면 할수록 시선은 모든 인간적 고통에 무심해질 뿐이다.

시백이 박씨의 추비한 인물을 보고 미워하며, 시비(侍婢)들도 역시 밍게 여기는 고로, 박씨 주야로 동방(洞房)에서 홀로 잠자기만 일삼더니, 시백이 더욱 미워하여 쫓아 보내고자 하나, 부친이 두려워 마음대로 못하더라. (『명월부인전』 29)

그렇다고 해도 박씨는 기하학적 배치의 대상으로 응고된 상태에서 머물지 않는다. 다만 이 역전의 방식은 자신이 받았던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박씨는 시선이 아니라 낯빛과 몸짓을 통해 타자의 시선에 의해 응고되고 박제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난다. 박씨가 스스로 변신하는 것이다.

IV. 낯빛과 몸짓의 응전

어느 날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칭이 있다고 말한다.

미부(微婦) 얼굴이 추비하고 덕행이 없어 군자에게 뜻을 얻지 못하오니, 후원에 험실을 창건하여 주읍시어, 일신을 감추어 거처케 하옵소서.(고대본 157)

박씨는 스스로를 차폐하기를 선택한다. 당을 지어 타자화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박씨는 이 집을 ‘폐화당’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미래 시점의 사건을 연결해 놓는다. 박씨는 한발 더 나아가 나무를 심어 집을 보호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시선들을 완전히 차단한다.

박씨가 계화를 시켜 후원 협실 사방에다 나무를 심되, 동방에는 청토(靑土), 남방에는 적토(赤土)요, 서방에는 백토(白土)요, 북방에는 흑토(黑土)요, 중앙에는 황토(黃土)요, 나무 북돋아 때때로 물을 주어 무슨 형용같이 기르더니. 그 나무 무성하였는지라(고대본 165 쪽)

박씨 초당에서 홀로 거처한 후 당이름을 피화당(避禍堂)이라 써붙이고 후원 협실에 계화와 더불어 각색 나무를 전후좌우에 심을 새, 흙을 가져다가 동에는 청기(靑氣)를 응하여 청토(靑土)로 나무 뿌리를 북돋우고, 서에는 백기(白氣)를 응하여 백토(白土)로 북돋우고, 남에는 적기(赤氣)를 응하여 적토(赤土)로 북돋우고, 중에는 황기(黃氣)를 응하여 황토(黃土)를 돋워 오색이 영롱하게 심어놓고, 계화로 하여금 때를 맞추어 물을 주게 하니 풍운(風雲)이 자욱한 중에 나뭇가지는 용(龍)이 서린 듯, 잎사귀는 범이 호령하는 듯, 온갖 새와 뱀의 변화 무궁하니, 그 신기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겠더라. 무지한 사람이야 그 신기한 술법(術法)을 뉘 알리오. (『명월부인전』 47)

나무로 둘러싸인 피화당은 이제 내부에 들어온 외부, 속계에 만입된 선계가 된다. 이 속에서 박씨는 탈갑-변신을 행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변신 이야기는 우주의 유동성, 세계의 불확정성을 상상력을 통해 가시화하는 세계 이해의 한 경로이다. 문화적 권력들이 세계를 정태적이고 일원적이며, 그리하여 하나의 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곳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화적, 환상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변신 이야기는 그 단정의 힘,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포획하려는 통제력에 반동적 균열을 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신 이야기는 우주가 완전히 닫히기 전,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이전의 유동성과 활력 그리고 이중성을 서사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무게를 잊거나 잠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씨의 탈갑-변신 역시 그런 심리적 보상과 쾌감을 주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박씨의 추모는 '비범성을 감추는 장치'로 해석된다.³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박씨의 경우 추모일 때보다 미모일 때 더욱 강력한 비범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박씨는 외모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비범성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외모가 곧 비범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외모와 비범성은 직접적 관련이

30. 신선희, 『박씨전』의 작중인물고, 『이화어문연구』 9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7, 248쪽.

없다. 이런 관점은 결국 추모와 미모를 마치 선과 악처럼 가치 평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박씨의 추모는 그녀의 열등함도 악함도 아니며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삶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한 선행 연구는 『금방울전』과 『박씨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를 성년식, 여성의 우위성, 비천한 출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신분의 열세를 극복하는 길이 미인으로의 변신이라는 것이다.³¹ 이런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방울은 남해 용왕의 용녀였다는 점에서 미천한 신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박씨 역시 선계의 인물로 추정되는 박처사의 딸이라는 점에서 세속적인 사회에 편입해서 신분 상승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의 변신은 단순히 영웅적인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영웅적 해방이 목적이었다면 미모가 아니라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 깨달음으로 귀결되는 불교의 변신 설화와 달리³² 박씨의 변신은 내면적인 깨달음과 초탈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박씨의 변신을 불완전에서 완전으로의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박씨는 변신하기 전에도 이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미모는 박씨가 전쟁 중에 발휘하는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탈갑 이전의 추모는 일종의 타자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이 타자화는 사실 안과 밖, 중심과 외부를 바꾸는 과정의 일부다. 박씨의 탈갑-변신은 단순한 상위 단계로의 상승이 아니라 안과 밖, 중심의 전치라고 할 수 있다.³⁴ 박씨는 자신의 힘으로 배치된 타자가 아니라 중심을 향한다. 피화당은

31. 김미란,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문호』 제 8집 1호, 건국대학교, 1983, 183쪽.

32. 지극한 불심을 통해 내면적 변화를 겪은 이후에 누구든 초월의 경지에 이를 수 있거나 자기 완성과 깨달음으로부터 인간을 긍정하고 초월성과 행복하게 조우하려는 것을 불교 설화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김지선, 「동아시아 서사에서의 변신 모티브 연구」, 『중국어문논총』 25집, 중국어문연구회, 2003, 162쪽.

33. 조혜란은 추모에 대한 과장된 묘사가 타자의 이미지로 재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결론부에 지적된 것으로, 그 효과나 의미에 대한 분석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는다. 조혜란, 앞의 글.

34. 이는 피화당의 성격 변화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피화당 역시 내부에 들어온 외부였다가 이후 전쟁을 만나자 외부를 끌어들이는 내부로 전이한다.

박씨의 탈감-변신은 근본적인 조건이자 탈감-변신과 동조된 공간이다. 단군 신화의 웅녀 이야기처럼 보통 입사식은 동굴이나 석실 등 은둔처이자 주변과 차단된 단절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동굴적 장소는 두 세계가 겹쳐진 공간이며 이 속에서 변신의 주인공은 상징적 죽음을 통과한 뒤 부활 혹은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박씨가 탈감한 장소 역시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단절적 공간인 피화당이였다. 내부의 외부로서, 내부에 만입된 상층(선계)의 세계로서 피화당 안에서 박씨는 시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솔들에게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타자화와 부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죽은 이였고, 이 상징적 죽음을 탈감을 통해 극복하고 부활한다. 그런데 이 부활은 초월이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박씨는 탈감을 통해 이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정착하기 때문이다.

박씨에게 이 정착의 방법은 낮빛과 몸짓의 과시 즉 저항으로서의 과시하기라는 역전으로 나타난다.

계화가 보니 추비한 아씨가 허물을 벗고 옥같은 얼굴이며 달같은 태도 사람을 놀래며 향기가 방안에 가득한지라. 계화가 도리어 정신을 진정하여, 보고 또다시 보니 그 아름답고 고운 태도는 옛날 서시(西施)와 양귀비(楊貴妃)라도 미치지 못하겠더라. (고대본 175)

박씨가 그날 밤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둔갑변화하더니, 허물을 훌쩍 벗었는지라. 날이 밝으며 시비 계화를 부르니 승명하고 들어가니 홀연 예 없던 절대佳人(絶代佳人)이 방안에 앉았거늘, 계화 자세히 보니 아리따운 얼굴과 모한 태도 월궁(月宮)의 선녀 같은 지라. 한번 보매 정신이 비월하여 그 이유를 알지못하고 앉았더니, 박씨가 화월(花月)같은 얼굴을 들고 단순(丹脣)을 반개(半開)하여 계화더러 이르되 『명월부인전』 63

이 과시하기는 박씨에게 우호적이었던 계화와 득춘³⁵뿐 아니라 다른 식솔들에게도 공개된다. ‘부인이며 일가가 분주히 다투어 피화당으로 들어가보니, 옥

35. 이득춘은 미모가 된 박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송상이 놀라 자세히 보니 과연 절대佳人(絶代佳人)이라. 용모가 화려하고 아리따운 태도는 정정요요하여 월궁(月宮)의 향아 같은지라. 상공이 도리어 정신이 혼미(昏迷)하여 아무리 보아도 인간 인물은 아닌지라. 뉘 아니 진기(珍奇)히 여기지 아니 하리오.’(고대본 177); ‘공이 피히 여겨 계화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니, 향기가 촉비(觸鼻)하여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는지라.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자세히 바라보니 만고일색(萬古一色)이요 요조 숙녀 하나가 방안에 앉았다가 공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머금고 반기는지라.’ 『명월부인전』 63

빈홍안(玉鬢紅顏)이며 화용월태(花容月態)는 아무리 보아도 인간 인물은 아니라.(고대본 177) 박씨는 장안 대신 덕 부인들이 미모가 된 박씨를 구경하고자 만든 낙산 숲 이원(梨園) 청루(靑樓)의 야유회에 박씨는 피하지 않고 참석한다. 여기서 박씨는 ‘옥같은 얼굴과 달같은 태도로 위의(威儀) 거룩하고 풍채(風采) 정정하여’ 좌중으로 하여금 ‘경신흡양(敬信欽仰)하게 만들기까지 한다.’³⁶

그러나 가장 극적인 과시하기, 시선의 역전은 시백과의 대면에서 드러난다. 아버지가 들어가 아내를 만나 보라고 하자 시백은 ‘낯빛을 찡그리며’ 문을 연다.

(시백이) 들어가려 하면, 자연 얼굴이 붉어지며 말이 꼬질꼬질, 가슴이 답답, 숨을 쉬지 못하고 겨우 한 발만 들여놓고 생각하다 얼핏 들어앉더라. 박씨는 짐짓 그 눈치를 알고 속마음에 우습되, 외면 더욱 낯빛을 씩씩히 하고 몸을 요동(搖動)시키지 아니하고 앉았더라. 이때 시백이 방 안에 죽기를 무릅쓰고 앉았으나 입이 무거워 말을 할 수 없어, 다만 두 눈이 박씨 얼굴을 뚫을 듯하되, 박씨는 단정히 앉아 호발(毫髮)을 부동하더라. (고대본 180)

문을 열어보니 요조숙녀 부인 하나가 얼굴이 발개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으되, 앉은 태도는 매화월미(梅花月眉)의 두루미 같고, 엄숙한 위엄은 단산절벽(丹山絕壁)의 맹호(猛虎) 같은지라. 한 번 보고 여광여취(如狂如醉)하여 바빠 들어가서 수작(酬酢)하고 싶으나 엄엄(嚴嚴)한 기상을 다시 본즉 찡그리고 앉은 태도는 만학천봉(萬壑千峰)의 범이 밥을 물고 앉은 듯, 대해(大海) 중의 청룡이 여의주를 던져 물고 앉았는 듯, 짐짓 벽해에 올라 재주를 시험하는 듯 마음이 자연 송구(悚懼)하여 수작은커녕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하

36.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술이 박씨에게 미치매, 박씨 잔을 잡아 짐짓 치마에 기울이니 치마가 젖는지라. 즉시 시비를 명하여 치마를 벗어주며, “불에 사르라.” 하니, 시비가 곧 불에 넣으니 다 타고 재만 남았는지라. 박씨가 시비를 명하여, “재를 털고 치마를 가져오라.” 하여 입으니, 그 치마 빛이 전보다 황홀하여 더 고운지라. 좌중 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며 기이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니, “이 비단 이름은 화환포라. 흑투색(滙色)하면 물로 씻지 못하고 불로 씻으며, 이 비단은 불취 터럭으로 짠 비단이니 불취는 인간에는 없고 선정(仙境)에만 있다.” 부인들이 또 묻기를, “입으신 저고리는 무슨 비단이니이까?” 박씨가 “이 비단 이름은 빙잠단이라. 우리 부친이 용궁(龍宮)에 들어가 얻어온 것이니,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아니하니, 이는 인간 재주가 아니라 용녀(龍女)의 수품입니다.” 하니, 모든 부인들이 서로 보고 칭찬하며 신기히 여기더라. 또한 술을 박씨께 권하니, 그녀가 받기를 사양한대, 모든 부인이 일양 권하거늘 박씨 받아가지고 금봉채를 빼어들고 술잔 가운뎃을 그으니, 술이 절반씩 갈라지는지라. 박씨가 한 편만 마시고 놓으니, 모두 보니 한편은 칼로 베인 듯이 있거늘, 모든 부인이 보고 그 신기함을 흡양경복(欽仰敬服)하여 중일 즐기더라.’ (고대본 185)

고 도로 나오며 (『명월부인전』 65)

이 장면은 『박씨전』을 창작하고 독서했던 사대부 계층 여성들에게 모종의 심리적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소설도 이런 극적인 심리적 역전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자화하는 시선의 고통을 묵묵히 견딘 박씨가 시백에게 시선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씨는 시백에게 타자화하는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신이었던 낮빛과 몸짓으로 대응한다. 썩썩한 낮빛, 단정한 몸짓으로 두루미, 맹호, 범, 청룡과 같은 기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낮빛과 몸짓 안에 언어를 담는다.³⁷

박씨가 안색을 단정히 하고 말씀을 나직히 하여,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어려서는 글공부에 잠심(潛心)하여 부모께 영화(榮華)와 효성(孝誠)으로 섬기며, 처를 얻으면 사람을 현숙히 거느려 만대유전함이 사람의 당당한 일이운데, 군자는 다만 미색만 생각하여 나를 추비하다 하여 인류(人類)로 지치 아니하니, 이러하고 오륜(五倫)에 들며 부모를 효양(孝養)하겠소. 이제는 군자로 하여금 여러 날을 근고하게 할 뿐 아니라, 군자의 마음이 염려되어 예전의 노여움을 버리고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고하니, 일후는 수신제가(修身齊家)하는 절차를 전과 같이 마음소서.” (고대본 182)

박씨의 탈갑-변신은 타자를 대상화하고 통제하는 시선을 시선으로 되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낮빛과 몸짓으로 돌려주는 확장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탈갑 이전에도 박씨는 낮빛도 몸짓도 언어도 가지고 있었다. 시아버지에게 남들의 시선과 식솔들의 냉대를 피해 혼자 거처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란에 대비할 목적의 공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아버지의 조복을 통해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탈갑 이전

37. 『명월부인전』에는 보다 더 전형적인 유가적 이념들로 표현된다. “우리 조선은 예의지국(禮儀之國)이라 하였으니, 어떤 일로 오륜(五倫)과 예의를 모르시오. 그대 아내가 박색이라 하여 3, 4년을 천대하였으니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어디 있으며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어찌 알겠소. 또한 고서(古書)에 일렀으되,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 하였는데, 그대는 다만 미색을 취하고 부부간 박색이라 물리쳤으니, 오류를 생각지 아니할 제 어찌 재덕(才德)을 알며, 아내 심정을 모르올 적에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한들 보국안민(輔國安民)할 재주가 있사오리까. 지식이 저리 없을진댄 효제충신(孝悌忠信) 어이 알며, 제세치민(濟世治民) 어찌 알리이까. 차후는 효도를 다하여 충성을 다 못하올 듯하니. 나같은 아녀자(兒女子)의 마음으로도 그대 같은 장부는 부러워 아니하나다.” (『명월부인전』 69)

에 박씨의 낯빛과 몸짓은 판본에 따라 다르더라도 ‘애연낙루’하거나 ‘슬퍼’하거나 ‘태연’한 정도에 불과했다.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힘에 대한 감수의 방법에 불과했다. 그러나 탈갑-변신 한 후 박씨는 보다 분명한 낯빛과 몸짓으로 남편과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이러한 박씨의 낯빛과 몸짓에 시백이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이 꼬질꼬질, 가슴이 답답, 숨을 쉬지 못하고 겨우 한 발만 들여놓는’(고대본 180)다거나 박씨가 부른다는 계화에 말에 엎어지듯 고꾸라지듯 ‘전지도지(顛之倒之)하여’(고대본 182) 피화당에 달려가는 정도다. 시백은 더 이상 아내를 괴물 취급하던 시선의 주체가 아니라 아내의 당당하고 준엄한 낯빛과 몸짓에 기가 눌린 수동적 위치에 선다. 이 시선의 역전, 타자화하는 시선들과 대결하는 몸짓과 낯빛의 전쟁은 창작자들과 독자들에게 나름의 심리적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탈갑-변신 이후 박씨가 더 넓은 장에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박씨의 탈갑은 개인적 깨달음이나 영향력을 얻거나 혹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발언권을 얻고 보다 확장된 역할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갑 이전에도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남편을 움직이고자 했으며, 조복을 짓고 명마를 알아보고 치산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탈갑은 박씨에게 더 큰 발언권과 역할의 자임을 가능하게 해준다. 탈갑한 뒤 박씨는 국난에 대해 조연하고 호장과 대결하며 대비를 풀려나게 한다.

따라서 미모로의 탈갑은 비범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비범성을 어디에 펼칠 것인가라는 활동의 장(場)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씨는 탈갑-변신을 통해 비범성이 미치는 범위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한다. 박씨에 전쟁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시백과 정상적인 부부 관

38.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박씨의 비범성은 그의 미모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사실 미모를 얻기 전에도 박씨는 자신의 비범성을 증명해보였다. 하룻밤에 시아버지의 조복을 짓는다거나 좋은 말을 알아보고 비싼 값에 되팔아 가산을 늘린다거나 꿈속에 등장한 연적으로 남편을 과거급제 시키는 등 박씨의 비범성은 충분히 드러났다.

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비범성은 차이가 없었겠지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말을 조정에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탈감변신을 통해 박씨는 공적 영향력을 획득한다. 박씨의 몸짓은 시선에 대한 보복 수준을 넘어 이제 전쟁이라는 거대 서사에서 펼쳐진다.

V.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피화당

피화당 안에서 박씨는 시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된다. 몸을 숨긴다는 것은 몸을 감추는 것이고, 그들의 시선에 감시당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씨는 공간적으로 격리되기를 택한다. 박씨는 피화당에 은거함으로써 또한 피화당 주변을 오색의 흙 위에 쌓아올린 나무들로 막아 스스로 자신을 감춘다. 이 자발적 차폐를 통해 박씨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권력적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피화당은 넘겨 볼 수 없는 곳이 되었으며 박씨의 몸은 놀림받는 시선의 전쟁터를 면하게 된다. 피화당은 푸코식으로 말하면 정상공간을 반박하는 반공간³⁹⁾의 역할을 한다. 피화당은 '서로 구별되는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다.

푸코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신화적이고 실제적인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이 다른 공간들, 다른 장소들을 '헤테로-토피아들'⁴⁰⁾이라고 부른다. 헤테로토피아는 푸코가 '다른(heteros)'과 '장소(topos)'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특권화되거나 신성시되며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위기의 헤테로토피아, 영양소나 정신병원, 감옥처럼 평균 혹은 규범의 요구로부터 이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마련된 장소인 일탈의 헤테로토피아, 도서관, 박물관처럼 시간이 축적되는 시간적 헤테로토피아 등으로 나눈다. 헤테

39. 푸코에 따르면 '서로 구별되는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 그것은 일종의 반(反)공간(contre-espaces)이다.'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13쪽.

40. 위의 책, 15쪽.

로토피아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여러 공간이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져⁴¹ 있으며 그 자체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⁴² 헤테로토피아들은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이다.⁴³

주지하다시피 푸코는 공간을 담론의 변형과 그 안에 작동하는 권력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해주는 전략적 표지로 활용한다. 헤테로토피아 역시 공간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푸코의 설명을 따른다면 피화당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피화당은 박씨에게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이자 추모로 인해 정상성의 하위에 배치된 박씨를 위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하는 것이다. 피화당 역시 서로 양립불가능한 공간이 겹쳐져 있다. 피화당은 이시백의 뒷마당에 지어진 집일 뿐이지만 동시에 박처사가 거하는 금강산의 선계가 연결된 공간이기도 하다.

승상이 구경코자 계화를 따라 후원 협실에 들어가니, 과연 나무를 심어 무성하였는데, 그 나무가 사면에 뻗어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였고, 가지와 잎은 뱀과 각색 짐승이 되어 서로 응하여 보기 엄숙하고 운무(雲霧) 자욱한 듯하여, 오래 서서 이윽히 보니 그 가운데 풍운조화(風雲造化)가 있어 변화무궁한지라. 또한 협방을 보니 문 위에 현판(懸板)을 붙였으되, 호왈(號曰) 피화당(避禍堂)이라 하였거늘(고대본 167)

공이 들고 희한히 여겨 계화를 데리고 구경차로 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니, 각생 나무가 사면에 무성하여 형용이 엄숙하여 바로 보기 어려운지라. 공이 놀라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나무는 용과 범이 화하여 바람과 비오려는 듯하고, 가지는 무수한 새와 뱀이 수미(首尾)를 접하고 응한 듯 변화무궁한지라. 공이 대경하여 탄복하시되(『명월부인전』 47)

피화당은 속계에 만입된 선계이자, 내부에 탐입한 외부이다. 박씨의 변신 이전에 피화당은 내부-정상성에 의해 타자화된 외부, 내부에 만입되어 있는 외부와도 같았다. 그러나 박씨의 탈갑 이후 피화당 역시 탈갑-변신을 한다. 전쟁이라는 거시사를 끌어들이는 미시적 중심이 된다. 박씨의 육체가 시선과의 전쟁을 치루는 전장이었듯 피화당은 국가의 적과 전쟁을 치루는 전장이 된다.

41. 위의 책, 16쪽.

42. 위의 책, 22쪽.

43. 위의 책, 24쪽.

이때 울대가 100여 기(騎)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수탐하더니, 내외가 적적하여 빈 집 같거늘, 차차 수탐하여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늘어서 무성하였는지라. 울대가 고이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며,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풍운(天地風雲)을 이루며, 살기(殺氣) 가득하여 은은한 고각(鼓角)소리 들리는데,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피난하였더라. 울대가 의기양양하여 피화당을 검직하려 달려드니, 불의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흑운(黑雲)이 자욱하고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진동하며, 좌우 전후에 늘어섰던 나무들이 일시에 변하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되어 점점 에워싸고, 가지와 잎이 변하여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되어 상설(霜雪) 같으며, 함성(喊聲)소리가 천지진동하는지라. 울대가 대경하여 급히 내달아 도망치려 한즉, 벌써 갈갈은 바위가 높기는 천여 장이나 되어 앞을 가리워 겹겹이 둘러싸이니, 전혀 갈 길이 없는지라. (고대본 205)

(용골대가) “그 나무를 다 베어 버려라.”하니, 문득 미친 바람이 일어나며 운무가 자욱하더라. 나무마다 무성하여 무수한 장졸(將卒)이 되고, 금고함성(金鼓喊聲)은 천지진동하며, 용과 범이며 검은 새와 흰 뱀이 수미를 상접(相接)하며 풍운을 토하고, 기치, 창검이 별 같으며, 난데없는 신장이 갑주(鎧冑)를 입고 삼척검(三尺劍)을 들어 호병을 엄살하니, 뇌성벽력이 강산이 무너지는 듯하며, 호진(胡陣) 장졸들이 천지를 분별치 못하고, 주검이 구산(丘山) 같더라. 용골대가 더욱 분기대발하여 칼을 들고 달려든즉, 명량한 천지가 도로 자욱하며 무수한 신병(神兵)이 도로 엄살하니, 호진 장졸이 감히 손을 용납지 못하더라. (고대본 209)

병자호란 중에 피화당은 내부에 의해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외부가 아니라 적-타자들을 불러들이는 중심으로서의 내부가 된다. 박씨는 피화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적을 피화당 앞으로 끌어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 내부와 외부의 역전을 통해 박씨는 실천의 무대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바꾼다. 박씨의 탈갑은 결국 피화당의 공간적 전환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단순히 불완전한 단계에서 완전한 단계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맺는 관계를 바꾸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피화당은 어쩌면 조선 여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VI.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박씨는 언어를 가진 자일 뿐 아니라 실천의 능력과 방법, 장을 스스로 확보해나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비범한 능력과 같은 초과적이고 비현실적 힘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내리는 실천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씨와 피화당의 전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나무'라는 점이 흥미롭다. 박씨가 피화당 주변에 심은 나무는 낮설어하며 타자화하는 시선을 막는 가림막이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부유하게 만드는 권력의 시선을 막는 보호벽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박씨가 나무를 심는 것은 편입을 거부하며 자신을 배제하려는 모든 힘들에 맞서 스스로 부유를 끊고 독특한 구조와 방법으로 '뿌리'를 만들어 내리는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사건이 여성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설의 작가도 이본에 참여했던 필사자들도 독자들도 모두 혁명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현실의 여성적 공간 안에 선계를 개입시키기도 하고 거시사를 중첩시키기도 하면서 이들은 현실을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영웅성을 꿈꾸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집'과 '나무'를 통해 타자화되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는 현실적 세계를 그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박씨의 신체는 시선에 노출되지만 그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고 물질화되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이 받은 경멸의 시선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는다. 대신 박씨는 낮빛과 몸짓으로 말한다. 박씨는 신성하고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자로서 박씨는 스스로 과거를 평가하고 통제하며 스스로 미래를 만든다. 시아버지에게 피화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기흥대가 올 것을 예고한다. 박씨의 언어는 미래적이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 시선을 가진 시백은 변화를 만들 능력이 없지만 시선에 의해 사물화되더라도 낮빛과 몸짓 그리고 언어를 가진 자로서 박씨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시선에 의한 신체의 통제와 일상의 정복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사실상 비

범한 능력이나 도술이 아니라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온전히 그 자신인 낮빛과 몸짓 그리고 자기 언어를 가지는 것일 수 있다. 물론 박씨의 언어와 실천은 절충적이고 타협적이다. 박씨는 임신양명과 출장입상, 효를 말하며 대의를 논한다. 박씨를 통제하고자 했던 외부의 이념과 규준에 기대있는 것이다. 아마 그 타협과 절충이 이 글의 작자이자 독자였을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전복의 사유를 밀어붙일, 다른 삶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대부가의 규방 여성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씨전』 『성호사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전문학전집』, 199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허균, 『홍길동전 박씨부인전 전우치전』, 보리, 2007.
- 곽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126집, 국어국문학회, 2000.
- 김미란, 「『박씨전』과 변신의 모티프」, 『국어국문학』 78집, 국어국문학회, 1978.
 _____, 「고대소설에 나타난 여성변신의 의미」, 『문호』 제 8집 1호, 건국대학교, 1983.
- 김선희, 「가(家)의 확장과 내부의 실천: ‘여성’으로 본 성호학파의 유가적 세계」, 『민족문화연구』 6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지선, 「동아시아 서사에서의 변신 모티브 연구」, 중국어문논총 25집, 中國語文研究會, 2003.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변광배, 「사르트르의 시선과 신체에 관한 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37집, 한국불어불문학회, 1998.
- 신선희, 「『박씨전』의 작중인물고」, 『이화어문논집』 9집, 이화어문학회, 1987.
- 심복동, 「『박씨전』 연구: 道敎思想을 中心으로」, 『道敎文化研究』 11집, 한국도교문화학회, 1997.
- 이유경, 「여성 영웅소설의 이야기전개 방식」, 『한국의 여성 영웅소설』, 태학사, 2000.
 _____, 『고전문학 속의 여성 영웅형상 연구』, 보고서, 2012.
-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손우성 역, 삼성출판사, 1990.
 _____,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09.

- 장효현, 「『박씨전』의 문체의 특성과 작품 형성 배경」, 『한글』 226집, 한글학회, 1994.
- 정병현, 『한국의 여성 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전용문, 『여성 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조은희, 『고전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줄리아 크리스테바, 『페미니즘과 문학』, 김열규 외 공역, 문예출판사, 1988.

Abstract

Body, Sight, and Power: Focusing on Pakssijeon the Female Hero Novel

Kim, Seonhe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e paper is an attempt to reconstruct the voice of a subordinate who is not controlled by the patriarchal ideology, through “Pakssijeon,” one of the late Joseon female hero novels. Unlike the other researches within literary boundaries,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is novel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cality and sight as the field of patriarchal power in which women as the other is compulsorily placed. If we can read the visual control and placement of the body as Park’s metaphor for power relations, Park’s various practices can also be read as a political attempt to reverse power. Meanwhile, Park also protects herself and whole family and reverse the power through the ‘heterotopia’ that one of the Foucault’s concepts to show cultural, institutional and discursive spaces that are somehow ‘other’, while at the same time bringing the batter into it to transform the status of power.

Keywords: body, sight, power, Pakssijeon, Female Hero Novel, Heterotopia

논문 투고일 : 2020년 3월 25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4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4월 16일